

문화관광연구원은 기관장의 리더십, , 명동정동극장은 주요 현안과 제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결과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외 기관은 모두 보통 평가를 받아 개선해야할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문화번역원의 경우에는 국제교류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인력관리 및 청년인턴 채용등 경영효율화 부분과 국제적 인지도 및 네트워크 확대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주요 현안 과제인 복합문화공간창출과 문화상품 개발 보급부분에서 지적을 받아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 교육 사업 프로세스에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서울예술단의 경우 문화소외계층 사업과 노사문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 국립발레단의 경우에는 인력 관리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받았고, .

국민생활체육회는 대부분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과제 해결 과정에서의 부족함이 지적되었고, 대한체육회의 경우 현안과제의 목표 달성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실시는 소관기관에 대한 평가가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문화 관련 기관에 대한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모델이 부재한 상황을 감안하여, .

이에 대해 한선교의원은 “ !반부처로는 처음으로 실시한 산하기관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평가과정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포함하여 문화부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 .
끝.